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추수

(요 4:35-38)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뿌려야 하고 받을 갈 때 갈아야 하고 잘못된 것들을 뽑아주고 솟아주는 일을 할 때 해야 되며 거름을 줄 때 주고 거둘 때에 거둬야 하는데 그 일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엄청난 손해가 오고 기회를 놓친 자의 슬픔을 맞게 됩니다.

1. 선교의 기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35)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고전 3:15). 사람의 공적은 다 불타는 날이 오고, 인간의 것은 다 사라지는 날이 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다니다가 정말 소유해야 할 영원한 진리는 소홀히 여기며 그것을 소유할 기회를 놓쳐 버리고 영원히 이를 갈아야 되는 불행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적인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십니다. 한 차례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오는 기회마저 놓쳐 버린다면 정말 그는 진정 불행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qhaus 예수님께서서는 추수하는 농부들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추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으로 무르익어 지금이야말로 저들을 추수할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었습니다(39-41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잠시 얘기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무리지어 달려오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안 한 목사님들이 해방이 되자 감옥에서 나와 교회를 만들고 고려파라 했습니다. 고려파 사람들은 총회파 사람들을 이단이라 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파 저파 갈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것도 이용하시고 저것도 이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르익어서 하얗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 밭을 보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별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만 하면 교회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전도학자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전도 받을 가능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사실은 그가 진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를 잘못 알았습니다. 사람이 바로만 알게 되면 무섭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인 줄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악심을 품고 있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니 추수할 밭이 되었습니다. 밭에 말씀을 뿌리니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거기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선교 전략

지금 도처에 추수할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을 때에 빨리 추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교 전략이 요청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수원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과일이 너무 잘 익어 뚝뚝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심분의 일 정도가 익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익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꾼 열 명을 잘 배분하는 것은 과수원 주인의 지혜입니다.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보내자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여기서 전략을 짜냅니다. 잘 익은 과수원은 하루 지나면 못 쓰게 되니까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을 보내서 빨리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두 명은 중간 밭에 보내고 한 명 정도는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언제쯤 익을 것인가 알아보아야 하니까 그 밭에 보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아시아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유럽에도 보낼 수 있지만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보내야 합니다. 어느 나라는 집중적으로 보내야 하고 아직 마음 문이 열려 있지 않은 나라는 조금 천천히 보내도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선교라고 무조건 아무 때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적 형편과 사회적 형편을 고려하면서 기회가 주어지고 상황을 보면서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도 좋고 헌신도 좋고 협력도 좋지만 그 전에 선교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제75주년

광복절

어제는 제75주년 광복절이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다.

일본 치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또한 남북이 하나 되고, 7천만 민족이 화합하는 제2의 광복을 바란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때이다.

오늘부터 주일 I·II·III 예배 시 찬양대 다시 서다

지난 2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서 독창 중심으로 드러지던 찬양대가 오늘 주일 I·II·III부 예배부터 다시 서게 된다.

온라인 예배에서 교회예배로 회복되었음에도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고자 모든 주일예배에서 찬양대원의 독창으로 드러지던 찬양대의 찬양을 당분간은 각 찬양대마다 10명으로 구성된 중창으로 드릴 예정이다.

각 찬양대마다 매 주 10명의 명단을 이미 작성하였고 연습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

다. 찬양대의 마스크는 교회에서 동일한 색깔과 모양으로 준비할 예정으로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그레이스핸드벨콰이어와 아멘관현악단도 오늘부터 예배를 담당하게 된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찬양대가 예배에 서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다. 각 찬양대마다 정부의 방역방침을 준수하며 최선의 찬양으로 영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자.

오늘 중등부·고등부 교회예배 시작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여 중단되었던 중등부(부장: 김승록 집사)·고등부(부장: 정완진 집사)의 교회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다.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신앙생활의 편리함과 나태함이 걱정되던 차에 중등부·고등부의 교회예배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 반별 위치 및 학생들 자리를 배정할 예정이다.

중등부·고등부가 교회예배 재개를 함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오랫동안 안 교회를 그리워했을 학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2020년 행동지침 중 하나로 우리는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교회예배를 기다리던 학생들에게 바른 말씀을 통한 바른 신앙교육을 다지는 기회로 삼자.

천국시민 양성 - 중등부·고등부

중등부·고등부 교회예배를 다시 시작하며..



김승록 집사 (중등부 부장)

2020년 1월 말 중등부·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등부·고등부 예배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안타까운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은 SNS로 성경말씀을 나누고 심방 등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위로 받았습니다.

드디어, 교회에서 중등부·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랫동안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와 회의를 하며,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또 감사

한 마음으로 예배장소를 청소하며 반가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아직 여전한 상황에서 출입등록과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선생님과 학생들을 더욱 친밀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욱 중등부·고등부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저희 중등부·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중등부·고등부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내라 ~~~ 서울교회 중등부·고등부 !!



우리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이강인·허숙 권정현·이옥수 감우균·김연화 이영민 윤종현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들께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는 회복지금 계좌와 다름으로 교회에 문의 바랍니다.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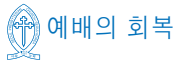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산)
 - * 일시: 9. 27(주)
 -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0(토)





다시 부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면서



최형렬 장로
(찬양위원장)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하신 말씀따라,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독창 중심으로 드렸던 찬양을, 오늘부터 중창 중심으로 약 6개월 만에 드리게 되어 무한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원들의 찬양드림을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는,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함을 애타하며,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던 우리들, 이제는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던 수금을 들고서 더욱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며, 찬송하게 하려고 지음 받은 우리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시 18:1)를 붙잡고 찬양 드리오니 우리의 힘이 되사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시 5:1)에 의지하여 찬양 드리오니, 곡조 있는 기도되어 악한 영이 떠나고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옥문이 열리고 사 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찬양의 능력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찬양대의 찬양이 다시 시작됨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선교보고 - 아프리카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에 주의 위로와 은총이 ...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먼저 두 분의 평안을 빕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인 저는 이곳 마칸디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제가 두 분께 저지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오히려 뒷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과 함께 받은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저의 소망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기도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제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마지막으로 늘 이웃을 돌보시는 두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의 아들인 저는 마치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부디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 따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돌로메 스쿠와 올림

1. 재소자 편지 사업

장기간의 복역을 마친 후 집을 찾은 출소자나 불쑥 들어서는 그를 맞게 되는 가족들에게는 재결합의 기쁨도 있었지만 이어서 새로운 변화로 인한 묘한 감정적인 충격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기 위해 금년 들어 작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재소자들이 부모나 배우자 심지어 자녀에게 또 상처를 입혔던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다짐을 아뢰는 편지를 쓰게 하고 그것을 저희 사역자들이 전화로 대신 낭독하여 주고, 편지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기대와 요구를 재소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닐지라도 마칸디 교도소 영내 공장에서 벌게 된 돈을 전화 송금을 통해 보내 주기도 합니다. 부디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 브리켓 제조공장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브리켓 제조공장이 드디어 가동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무사히 도착한 기계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기계설비와 공업용 전기 연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스나 전기로 취사를 하게 될 날은 아직 요원하지만 하고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를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마구잡이식으로 산의 나무를 베어다 취사를 하는 형편일 것입



니다. 그러나 반면에 추수를 마친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옥수수대와 길가에 무성히 자란 풀은 취사에는 적합하지 않아 쓰레기로 취급되어 한데 모아 불살라 버리는 일을 도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브리켓 제조 공정을 거치면 이런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들이 산에서 베어 온 화목과 비교해 결코 손색이 없는 좋은 땀감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 사람들

(4면에 계속)



(3면에 이어)
로 하여금 들녘에서 잡풀들을 가지고 오게 하여
무게에 따라 소정의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도
록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
고 있는 25개 초등학교와 190여 개 유아원에 보
급하여 쌀값이 부족해 급식을 거르는 경우가 앞
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병원과 학교 등에 납품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
하는 수익은 산과 들에 나무를 심는 일에 자금
으로 쓸 계획입니다. 즉 산의 나무를 베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식목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 이룩한 성공적인 조림사업을 뒤따를 수 있도
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적질 안하는 것 뿐 아
니라 도리어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는 저희 사역의 중심철학과 맥
을 함께 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부뚜막 개조사업

브리켓 보급과 함께 추진하는 사역은 부뚜
막 개조사업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그저 돌맹이
세 개 위에 숯을 걸어 놓고 장작을 때기에 불길
이 죄다 옆으로 새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것이
였습니다. 최근에 말라위에 부임하신 박일구 선
교사님이 고안한 스토브는 불길과 열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만든 것이라 훨씬 적은 쌀값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 차례의 '임
상 실험'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얻은 후 마칸디
교도소와 급식 대상 초등학교의 아궁이들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26번째 급식 대상 학교가 선정되어 급식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카송구 교도소 인근
의 두 번째 초등학교가 되는 셈입니다. 학교 이
름은 팡가(Mphanga, 동굴이라는 뜻)이고 학생
수는 800명가량 됩니다. 워낙 후미진 곳에 위치
해 건축자재 공급을 비롯해 공사에 어려움이 있
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
이 상상지도 못했을 선물을 받게 되는 격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공포의 도
가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라위에는 아
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체계가
너무 허술하여 만일 전염병이 도래하면 대책 없
이 희생자가 넘치게 될 것이라 당국도 무척 신
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서한을 받으시는 서울교회 원로목사님,
선교위원장님, 교역자님, 성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불편과 두려움에 함께 아파하며 간절히 주
의 위로와 은총을 기도드릴 따름입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

- ① 브리켓 제조공장 전경
- ② 버려지는 옥수수대를 이용한 쌀값 활용
- ③ 부뚜막 개조사업
- ④ 급식장 공사 마무리 중

서울교회 에티켓



반드시 체온측정 후 입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름성
경학교를 통하여 교회학교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
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
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
침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
서.
3. 우리에게 8.15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폭우와 홍수로 피
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
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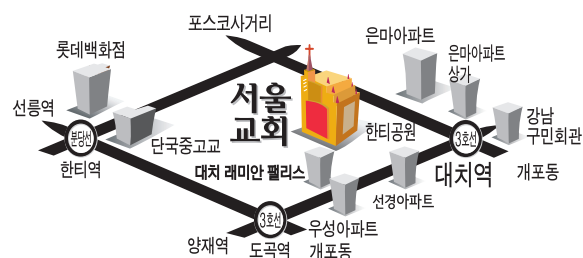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8월17일	월	렘 39-42		왕상 1-4	
8월18일	화	렘 43-47		왕상 5-9	
8월19일	수	렘 48-49		왕상 10-14	
8월20일	목	렘 50-51		왕상 15-20	
8월21일	금	렘 52, 애 1-2		왕상 21-22, 왕하 1-4	
8월22일	토	애 3-5		왕하 5-9	
8월23일	주일	겔 1-4		왕하 10-16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